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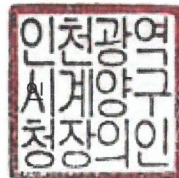
[☒]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신고필증
[] 직장주택조합

신고번호	2022 - 건축과 - 지역주택조합모집 - 2		
조합명	(가칭)효성역예정 지역주택조합	직 장 명	(가칭)효성역예정 지역주택조합
대표자	정보용	생년월일	1971-12-13
사무소 소재지	인천광역시 계양구 마장로 558, , 4층 (전화: 032-554-1230)		
조합원 수	300명		
조합원 모집 시기	2022년06월01일 ~ 2024년06월30일		

「주택법」 제11조의3제1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 신고를 수리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2년 06월 03일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청라국제도시~가정·작전~서울지하철 2호선 연결 추진

인천시, 사업화 방안 용역 착수... 하반기 중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입력 2022-04-01 04:06

+ -



아름다운 주방의 비결
스메그 토스터 TSF01 보기 >

SSG.COM



인천 청라국제도시에서 가정·작전을 경유해 서울지하철 2호선과 연결하는 ‘서울2호선 청라 연장’이 본격 추진된다.

인천시는 ‘서울2호선 청라 연장’의 최적 대안 마련을 위해 사업화 방안 수립용역을 착수했다고 31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을 발표하면서 ‘서울2호선 청라 연장’ 사업에 대해 대장홍대사업이 확정된 후 관계 지자체 및 민간사업자 등과 협의를 거쳐 최적 대안으로 추진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했다.

대장홍대사업은 지난해 11월 민자적격성조사를 통과해 올해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과 제3자 제안 공고를 거쳐 하반기에 우선협상대자가 선정될 전망이다. 이번 용역은 지난해 국토부가 제4차 국가 철도망구축계획 발표 당시 제시했던 부대의견에 따라 서울시·경기도 등 관계 지자체 및 대장홍대 선 민간사업자와 협의할 사업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서울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선, 대장홍대선 및 서울2호선 신정지선을 활용해 홍대입구역과 신도림역을 연결하는 기존계획뿐만 아니라 대장홍대선 연장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해 기술적·경제적 타당성을 살펴볼 계획이다.

또 4월 착수보고회에서부터 관계 지자체가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등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용역결과의 수용성을 높일 예정이다. 인천시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연말까지 관계 지자체 및 대장홍대선 민간사업자와 협의하여 최적 대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류윤기 인천시 철도과장은 “인천 서구·계양과 서울 도심이 빠르게 연결되는 서울2호선 청라 연장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gyo@kmib.co.kr

▶네이버에서 국민일보를 구독하세요(클릭)

▶국민일보 페이스북 팔로우

▶TV국민일보 영상뉴스

[6.1선택] 윤환 인천 계양구청장 당선인

입력 2022-06-12 오후 7:38

“계양TV·산단 성공 시켜... 미래 경제도시 만들겠다”



“14대째 계양에서 살아온 경험과 3선 구의원의 능력을 발휘해 주민의 행복한 삶 확실히 책임지겠습니다.” 이번 6·1 지방선거에서 승리한 더불어민주당 윤환 계양구청장 당선자는 앞으로 구정 핵심 키워드로 경제와 일자리, 복지, 주거를 꼽고 있다. 윤 당선자는 수도권을 선도하는 미래 경제도시를 만들고자, 사통팔달 혁신으로 지역 교통환경을 개선하고 새로운 천년의 문화·예술·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윤 당선자는 “검증되고 준비된 구청장으로서 계양의 현안 해결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윤 당선자와의 일문일답.

Q 당선을 축하한다. 소감을 말해달라.

A 부족한 저를 선택해 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을 드린다. 계양구의 큰 바람이 불고 있다고 생각한다. 지난 1995년 인천시 북구가 계양구와 부평구로 분구가 되면서 계양구에는 그린벨트나 군사시설, 농지 등의 분포가 높아 일자리 걱정보다는 끼니 걱정을 해야 하는 그런 시절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변화의 시기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책임감이 무겁게 다가온다. 압도적인 주민의 지지를 받아 당선했기에 바라는 것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저는 계양 지역에 14대째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계양의 지킴이다. 그래서 어느 누구보다 계양의 역사를 잘 알고 있다. 3선 구의원에 8대 전반기 의장을 경험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검증된 후보를 선택해 주셨다고 생각한다.

Q 이번 6·1 지방선거에서 승리한 요인을 꼽는다면.

A 주민들이 검증된 후보, 준비된 후보를 선택했다고 본다. 계양구는 그동안 일자리가 없어서 베드타운이라는 오명 속에서 살아왔는데 이제는 계양의 시대를 만들어야 한다. 일자리 걱정에서 서울 등 타 지역으로 출퇴근을 해야 하는 시대가 있었다. 앞으로는 계양의 시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처럼 중요한 순간에 주민들이 검증된 후보를 선택한 것이라 생각한다.

계양산단, 계양테크노밸리(계양TV) 등 현안 사업 해결을 통해 주민의 행복한 삶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승리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본다.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 선거에서 승리한 이재명 국회의원이 판교테크노밸리를 만들어낸 장본인이라서 그런 경력을 토대로 계양갑 선거구의 재선 의원인 유동수 국회의원과 힘을 모으면 일자리 10만 시대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일자리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던 시대를 종식시키고 일자리를 찾으러 계양으로 오는 시대를 만들어내겠다. 그 한을 풀어낼 책임자로 주민들께서 지지해 주셨다고 생각한다.

Q 당선자가 그리는 계양구의 청사진이 있다면.

A 여러 가지 풀어야 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첫 번째는 일자리다. 계양 지역에 14대째 살아오면서 일자리의 한을 갖고 있다.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서 우리 미래 세대들과 현재 청년 세대들이 계양을 떠나지 않고 찾아오고 머무를 수 있는 도시를 만들고 싶다. 현재 일자리를 만들기 시작했고, 5년 후에는 계양으로 사람들이 찾아오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당장 준비해야 할 것은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인프라 구축이다. 이를 통해 계양을 자족 기능을 완벽히 갖춘 도시로 만들겠다.

취임 초부터 문화예술 공연장 확충에 주력하겠다. 종전에 있는 계양문화예술회관은 접근성도 떨어지고 시설 자체가 많이 노후화했다. 그곳에서 공연을 하시는 분들도 주차장 문제 등으로 많이 싫어할 정도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면 문화예술을 즐기고 싶은 게 인지도상이다. 서울로 공연을 보러가려면 보통 입장료만 10만~20만원을 줘야 한다. 서민들 입장에서 고액의 입장료를 내고 서울까지 가서 공연을 즐겨야 하는 셈이다.

제대로 만들어진 공연장을 지어서 계양주민뿐만 아니라 인천 북부권, 경기 김포, 부천 등 주위에 사시는 분들이 찾아 오게 하고 싶다. 예술회관을 중심으로 곳곳에 야외 공연장을 만들어서 젊은이들이 한강 고수부지에서만 놀 게 아니라, 공기 좋고, 산 좋고, 물 좋은 계양에서 즐길 수 있게 하고 싶다. 문화예술 공간을 확보하는 데 큰 예산이 들어가지도 않는다. 토지 매입비만 좀 있으면 가능하다. 젊은이들이 열정을 뽐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맨날 젊은이, 젊은이 얘기나 하면서 정치권에서 외면하는 게 현실이다. 젊은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 기성세대들이 열정을 펼칠 공간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Q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가 계양TV와 계양산단 등인데, 앞으로 추진 방향은 무엇인지.

A 서운일반산업단지는 계양구가 만들어낸 작품이다. 10여년 전 구의원 시절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안을 통과시켰다. 기관이 법적으로 24% 투자할 수 있게 하면서 인·허가권, 준공권을 모두 계양구가 갖게 했다. 이 같은 방법을 통해 현재 서운산단에 71개 업체가 들어와 7천~8천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냈다. 계양산단도 앞선 경험을 통해 잘 이끌어 가겠다.

신도시와 연계된 계양TV는 규모가 상당히 크다. 국토교통부가 주관하고 이제 인천도시공사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계양구가 깊게 관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판교테크노밸리를 성공시킨 경험이 있는 이 의원의 경험을 배워야 한다. 판교테크노밸리의 지역내총생산(GRDP)이 100조원에 달하는데, 이보다 더 큰 규모의 계양TV를 성공시켜 150조원 이상의 성과를 내고 싶다.

Q 계양구의 문제점과 현안 과제는 무엇인가.

A 교통이 가장 큰 문제다. 특히 지하철이 문제인데 그동안에 비용대비편익(B/C)이 떨어져서 유치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간선급행버스체계(BRT)가 들어서 있지만, 교통 체증을 감안하면 지하철 시대가 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계양에 3기 신도시가 들어서면 인구 유입은 앞으로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서울지하철 2호선 연장 사업 등을 추진해야 하는 이유다. 서울 2호선의 서운, 작전, 효성역을 만들어 서구 청라로 이어져야 한다. 계양의 시대를 만들기 위해서 지하철이 필수다. 서울지하철 9호선 역시 인천 1호선 박촌역과 연결하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해당 구간이 5km 정도로 매우 짧은데도 불구하고, 이를 잇지 못해 계양 지하철 시대를 만들지 못한다는 것은 굉장한 모순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 낙후한 원도심이다. 원도심은 인천 전체의 문제이다. 계양 지역의 대표적인 원도심인 계산 1·2·3동, 병방동 등에 대한 재개발, 재건축을 어떻게 슬기롭게 잘 풀어갈 것이냐는 게 관건이라고 본다. 교통과 원도심 문제를 잘 정리하면 앞으로는 계양은 큰 문제없이 잘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Q 마지막으로 계양 주민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A 주민들께서 일하라고 뽑아주셨다고 생각한다. 굉장히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인 표를 주신 것도 일 잘하라는 의미를 담은 것이라고 본다. 인천에서 최다 표차로 당선한 것은 계양의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 달라는, 그런 희망을 갖고 저를 뽑아 주신 것이라고 생각한다. 4년 후 박수 치면서 '너 일 잘했다. 너 한 번 더 하면 안 되겠냐'는 말을 듣고 싶다. 제가 능력과 경험이 부족하기에 먼저 주민의 소리를, 아주 작은 소리라도 많이 듣도록 노력하겠다. 모든 결정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닌, 주민이 결정할 수 있게 하겠다. 권위를 내려놓고 권한만 가지는, 책임지는 정치인이 되겠다.

[인터뷰] 윤환 계양구청장 당선인 "자족도시 계양, '명품도시' 만들 것"

기사입력 2022-06-14 10:59 최종수정 2022-06-14 15:11

[김성민의 시사토평] "10만 일자리 창출 통해 '계양의 시대' 열 것"



윤환 인천 계양구청장 당선인 [경인방송 = 우다영 PD]

- 방송 : 경인방송 라디오 <김성민의 시사토평> (FM 90.7MHz 오전 7~9시 방송)
- 진행 : 김성민 앵커(경인방송)
- 인터뷰 : 윤환 인천 계양구청장 당선인

[인터뷰 오디오 듣기]<https://bit.ly/3zD9CJG>

*인터뷰 저작권은 경인방송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민 : 시사토평에서는 계속해서 6.1 지방선거 단체장 당선인들, 또 의회 당선인들 만나보는 시간 이어가고 있죠.

오늘 이 시간은 인천 계양구청장에 당선인 된 윤환 당선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 윤환 :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김성민 : 우선 인천 계양구청장 선거 당선되신 것 축하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선 소감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 윤환 : 이번에 정말 힘든 선거였거든요. 그런데 계양 국민들한테 정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요즘 경황이 없어서 일정이 빡빡하다 보니 인사를 못 드렸는데요. 이번 기회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정말 일 잘하라는 그런 명령으로 알고 있고, 실망시켜드리지 않는 그런 구청장이 되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한 선거 경험...정치 1번지가 된 계양구"

◆ 김성민 : 이번 인천 계양구청장 선거는 정의당 후보까지 해서 3명의 후보가 출마를 했습니다. 당선인 포함해서 말이죠. 지방선거 기간 동안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 또 힘든 점은 어떤 게 있었습니까?

◇ 윤환 : 인천에서 유일하게 저희는 정의당 후보도 있어서 '좀 힘든 싸움이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 지역은 또 특이하게 국회의원 보궐 선거도 있었고 그래서 전략적으로 이재명 후보께서 오셨는데요. '정말 특별한 선거를 치른 그런 경험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3자 구도도 구도지만, 보궐선거 이재명 후보의 일정까지 소화하면서 체력적으로도 굉장히 힘들었고요.

◆ 김성민 : 그러셨을 것 같습니다.

◇ 윤환 : 또 열혈 지지자분들께서 격려와 지지를 함께해 주셔서 또 저에게는 큰 힘이 됐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 김성민 : 아무래도 인천 계양구가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는 지역이 돼 버렸었잖아요. 그래서 거의 매일 인천 계양구의 선거 운동하는 모습이 TV와 뉴스를 통해서 나왔던 것 같아요.

◇ 윤환 : 네. 그래서 알아봐 주시는 분들 정말 많고요. '기초 자치단체장으로서 아마 유일하게 계양구가 전국의 정치 1번지가 된 느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성민 : 사실 경선 과정도 힘들었죠?

◇ 윤환 : 그동안 저도 이 3선 구의원의 경험을 갖고 있지만 세 번 경선을 한 경험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 김성민 : 본선만큼이나 경선도 굉장히 힘들었던 인천 계양구청장 선거였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인천 계양구청장 선거에서 당선된 결정적인 이유, 어디에 있다고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 윤환 : 저는 '계양의 변화의 바람을 좀 일으켜 달라' 이런 명령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3선의 경험과 8대 전반기 의장을 한 그 경험을 바탕으로 '제대로 좀 일 좀 해 달라.' 그리고 그동안 여러 가지 소외된 그런 계양 지역에서 탈피해서 '미래를 선도하는 계양을 만들어 달라'는 이런 염원이 담겨 있다고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계양구, 민주당의 승리...보수 진영을 전환시키기 위한 민주당 정치인들의 노력 결과"

◆ 김성민 : 보궐선거 국회의원 포함해서 구청장까지 이번에 선거를 통해서 다 바뀌게 됐습니다.

특히 이번 인천 계양구에서는 보궐선거 국회의원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됐고, 또 윤환 구청장 당선인도 당선이 됐고요. 시의회는 4명의 후보가 전부 다 당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5대 4의 구도로 더불어민주당이 우위를 점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계양 지역만 놓고 보면, 어디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승리 요인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 윤환 : 저희 계양은 많은 분들이 '민주당의 텃밭이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평소에 준비되고 갈고닦은 그런 결과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여기가

보수 지역으로 분류가 돼 있던 지역인데요.

보수의 진영, 그런 상황을 저희가 '민주당의 텃밭이다' 이렇게 전환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면서 민주당 정치인들이 끊임없이 노력하고 준비해 온 그런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성민 : 그렇군요. 사실 연승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불안해지지 않습니까?

◇ 윤환 :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선거 일정 같이 소화...함께 힘 모아 계양 발전시킬 것"

◆ 김성민 : 윤환 당선인께서도 3선 구의원 출신이어서 두 번째 당선까지도 이것이 어쨌든 민주당의 강세 지역이니까라고 생각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세 번째 정도 선거에 나갔을 때는 좀 불안하지 않았을까 싶고 그렇거든요?

◇ 윤환 : 3선 구의원 출마하면서 나름대로 자신감 있게 활동을 했었고요. '이번 선거는 특별한 선거가 아니었나.' 굉장히 힘들게 생각을 했고요. 선거 기간 과정에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여론 지지도에서도 지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었고 그래서 좀 초조한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요. 저는 국민들이 검증된 후보를 선택해 주실 거라고 믿고 있었고, 그래서 자신 있게 그리고 또 이재명 후보와도 친밀한 유대 관계를 갖고 그래서 결국은 동반 당선되면 결국은 힘을 모아 계양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이런 의지로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 김성민 : 선거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 측과는 커뮤니케이션이나 이런 것들이 잘 이뤄졌습니까?

◇ 윤환 : 언론에 보시다시피 거의 일정을 같이 하면서 주민들하고 같이 만나고 같이 소통하면서, 앞으로 당선되면 어떠한 일들을 하겠다는 주요 공약들을 같이 말했고요. 아마 그렇게 제시했던 사항들을 국민들이 인정해 주신 것 같습니다.

◆ 김성민 :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선거 기간 중에 이재명 후보가 국민의힘 윤형선 후보와 오차범위 안에서 뒤지는 결과가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말씀들을 서로 하고 그러셨습니까?

◇ 윤환 :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가 당선되는 이유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많은 어필을 하고, 그런 것들을 좀 세세하게 골목골목 전달을 좀 해야 되겠다'는 그런 서로의 의견들이 있어서 선거운동 방법을 중간에 바꿨습니다.

◆ 김성민 : 맞습니다. 언론 인터뷰도 안 하고 막 그랬습니다.

◇ 윤환 : 네, 그래서 이제 골목상권을 저희가 집중 공략하는 그런 선거 방법을 전환한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계양으로 일자리 찾아 오는 시대 만드는 것' 중요"

◆ 김성민 : 초반기에는 전국적으로 유세 일정을 소화하다가 마지막에는 계양구 지역의 밑바닥까지 전부 다 훑어 오는 그런 선거운동을 펼쳤었죠. 이번 인천 계양구청장 선거에서 가장 두드러졌던 쟁점을 살펴보면 앞으로 계양구의 발전 방향이나 변화된 모습도 가늠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쟁점들이 있었습니까?

◇ 윤환 : 저는 일자리라고 봅니다. 계양구가 그린벨트나 또 절대농지, 또 군사시설로 묶여 있어서 너무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일자리가 없어서 "베드타운이다" 이런 오명 속에서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일자리 시대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구청장 당선인 됐기 때문에 제2산업단지

도 만들어야 되고요. 이제 3기 신도시 계양 테크노밸리를 잘 완성 시켜서 일자리 10만 시대를 만들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이제는 일자리 없는 설움에서 이제 '계양으로 일자리를 찾아오는 시대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게 핵심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김성민 : 그래서 선거 기간 동안에 오로지 정책과 공약만 가지고 선거 유세를 하셨다는 이야기도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면 일자리 10만 계양, 이걸 실현시키기 위해서 어떤 공약들을 준비하면서 유권자들을 만나셨나요?

◇ 윤환 : 결국은 정책 얘기할 시간도 없는데 상대방 네거티브할 시간은 없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어쨌든 제 얘기 하기도 바쁜데 정책 대결이 저는 필수라고 봅니다. 이제 국민들이 그걸 판단하고 인정해 주셨다고 보고 있고요.

이제 이재명 당선 의원과 함께 유동수 시당 위원장과 힘을 모아서 3기 신도시 계양 테크노밸리도 완성시켜서 정말 제대로 된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를 책임 있게 만들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 김성민 : 계양구 인구가 지금 29만 3천 명 정도 되죠?

◇ 윤환 : 29만 한 5천 명 정도 됩니다.

◆ 김성민 : 일자리 10만 개 창출하면 인구 규모도 상당히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 윤환 : 일자리 10만 개 창출하면, 3인 가구 수로 봤을 때 아무래도 꽤 늘어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변지 저희 계양뿐만이 아니고 김포, 부천, 서구까지도 굉장히 발전될 수 있는 요소를 지니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계양 지하철 시대를 열겠다"

◆ 김성민 : 이렇게 일자리 10만 개가 창출이 되는 게 실현이 되고 그러면, 교통 인프라 문제도 계양구에 지금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개선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개선을 하실 계획입니까?

◇ 윤환 : 지금 버스 노선 가지고는 이걸 충당하기가 어려워서 2호선을 청라까지 연결하는데, 결국은 작전역이나 효성역, 서운역도 이제 저희가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특히 9호선도 가외동에 지금 기지창이 있는데 저희 계양구 토지가 한 40%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가외동 기지창에서부터 저희 박촌역까지 한 5km밖에 되지 않아요.

이재명 후보 시절에 기자회견을 했지만, 이 연결을 하면 인천 수도권 지하철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완전히 해결이 돼서 우리 인천의 지하철 시대가 완성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 김성민 : 현재 간선급행버스 체계는 체증 문제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죠. 주민분들이 불편하신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계양의 지하철 시대를 열겠다" 그런 약속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런 공약들을 실현 하려면 당선인께서 가지고 계신 경험과 노하우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경험담을 통해 이런 공약들을 실현 시킬 건지, 어떤 장점을 가지셨는지 이것도 좀 말씀해 주실까요?

◇ 윤환 : 결국은 제가 6대, 7대, 8대 3선의 경험을 가지고 있고요. 8대 전반기 의장을 하면서 결국은 '행정 경험을 두루 갖추었다, 준비된 후보다, 그리고 검증된 그런 후보를 선택해 주셨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금 계양의 일련의 변화들을 제가 쭉 지켜보면서 경험했던 그런 장본인이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토대로 앞으로 계양 발전을 위해서 미래를 선도하는 그런 계양을 만들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

"14대째 계양 살아...계양 역사 가장 잘 아는 정치인"

◆ 김성민 : 그리고 구청장이라는 역할 자체가 구민들, 주민들의 일상의 행복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그런 자리잖아요. 그래서 주민과의 소통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주민과의 소통 부분은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좀 더 발전시킬 계획입니까?

◇ 윤환 :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계획이 홍보실이나 국민소통실, 이런 부분들을 좀 강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과의 대화 시간을 지금보다 훨씬 더 확대해서 일반 국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요. 그래서 구민들을 많이 만나고, 직접 맨투맨으로 여러 가지 의견들이나 아주 작은 목소리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구를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 김성민 : 계양에서 오래 사셨다 보니 주민들과 그동안 소통을 굉장히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 윤환 : 14대째 살고 있습니다.

◆ 김성민 : 14대면 언제 적부터?

◇ 윤환 : 오래돼서 제가 그 역사를 잘 모르겠는데 300, 400년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성민 : 정말 오래 계양에서 14대 째 살고 계시네요.

◇ 윤환 : 그래서 정치인들 중에는 계양의 역사를 가장 잘 알고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성민 : 선출직 공직자 중에 이렇게 한 지역에 오래 살면서 그 지역에 선출직까지 되신 분이 있나 싶을 정도로.

◇ 윤환 : 제 기억으로는 아마 제가 유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 김성민 : 이거 좀 한번 나중에 역사 기록 좀 찾아가서 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양의 역사를 보존시키고 발전시키는 게 그런 의미에서도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역사, 문화 쪽으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 윤환 : 저희 계양산에 여러 가지 계양산성이라든지 역사적으로 유물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국가사적지로 지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양산성을 복원하는데, 계양산성 복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계양산 북사면 쪽에 롯데 부지가 77만 평이 있는데 골프장을 하겠다는 것을 저희가 막아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일부 동호인들이 즐기고 이렇게 그런 공간으로 쓰기에는 너무 아까운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인천시민도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는 입장은 '국제 관광객들이 저희 계양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명품 도시로 만들어내야 한다.' 그래서 역사도 중요하고 문화 예술도 병행해서 관광도시로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그런 쪽에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족도시로서 완전한 기능 갖춘 '명품도시' 만들 것"

◆ 김성민 : 그렇군요. 역사, 문화, 관광에 대한 계획도 말씀해 주셨고요. 그러면 이제 이것 좀 더 종합을 해서 향후 4년 간의 인천 계양구 행정을 통해서, 앞으로 인천 계양구의 미래 모습 어떻게 그려볼 수가 있을까요?

◇ 윤환 : 지금 이제 3기 신도시가 완성이 되면 일자리 10만 시대를 찾아올 거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지금 일자리가 없어서 끼니 걱정을 했던 그런 시대를 종식하고 이제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이 됐으니, 저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문화, 역사, 예술, 관광 사업까지 치중을 해서 자족도시로서의 완전한 기능을 갖춘 그런 명품 그런 계양구를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 김성민 : 베드타운 이미지였던 계양구를 자족 도시로?

◇ 윤환 : 이제는 계양의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성민 : 게다가 이제 계양 테크노밸리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많이 있죠?

◇ 윤환 : 그렇습니다.

◆ 김성민 : 이런 것들을 이루려면 구청장부터 시작해서 국회의원, 또 정치적으로 유력한 이런 분들의 도움도 같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윤환 :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재명 당선인과 유동수 인천시당 위원장과 힘을 모아서 같이, 또 광역의원들과 기초의원들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 발전에는 여야가 따로 없어"

◆ 김성민 : 인천광역시장에는 국민의힘 소속의 유정복 당선인이 선출됐습니다. 시 정부와의 협치, 이런 것들도 잘 이루어지겠죠?

◇ 윤환 : 뭐 지금 이 지역 발전에 대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 정부와의 협치의 중요성을 저는 강조하고 싶고요. 그래서 당은 다르지만 유정복 시장님을 찾아뵙고 저희 지역 문제, 이런 현안들을 집중적으로 논의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성민 : '지역 발전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이런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끝으로 못다한 말씀 있으면 해 주시고 마무리해 볼까요?

◇ 윤환 : 하여튼 저를 선택해 준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정말 일 잘하라는 그런 명령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검증된 그런 후보를 선택해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실망시켜 드리지 않는 그런 계양의 발전을 또 잘 이뤄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성민 : 지금까지 윤환 인천 계양구청장 당선인과 말씀 나눴습니다.

저작권자 © 경인방송 정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우다영 woody7283@hanmail.net

[기준 불명확한 '명예훼손 형사 처벌', 이대로 가도 괜찮을까?](#)

[\[인터뷰\] 차준택 부평구청장 당선인 "부평, '수도권 중심도시'로"](#)

["간호사 법 아닌 '간호법', 간호조무사 권익도 포함돼 있다"](#)

[\[인터뷰\] 강범석 서구청장 당선인 "서구주민 삶의 질 향상에 최선"](#)

도시·주택·토지

Home > 도시개발 > 도시개발 사업현황 > 효성구역

효성구역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

계양구 효성동 100번지 주변의 기존 노후·불량주택의 계획적 정비 및 공공시설 확보를 통한 공공복리 증진 및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

사업개요

위치: 계양구 효성동 100번지 일원

면적: 434,989㎡(131,584평)

계획인구: 10,195인(3,998세대: 공동주택 3,769, 단독주택 229)

총밀도: 234인/ha, **용적률:** 공동주택 230%, 단독주택 200%

시행기간: 2014. 2.~2025.12. 31.

시행자: (주) 제이케이 도시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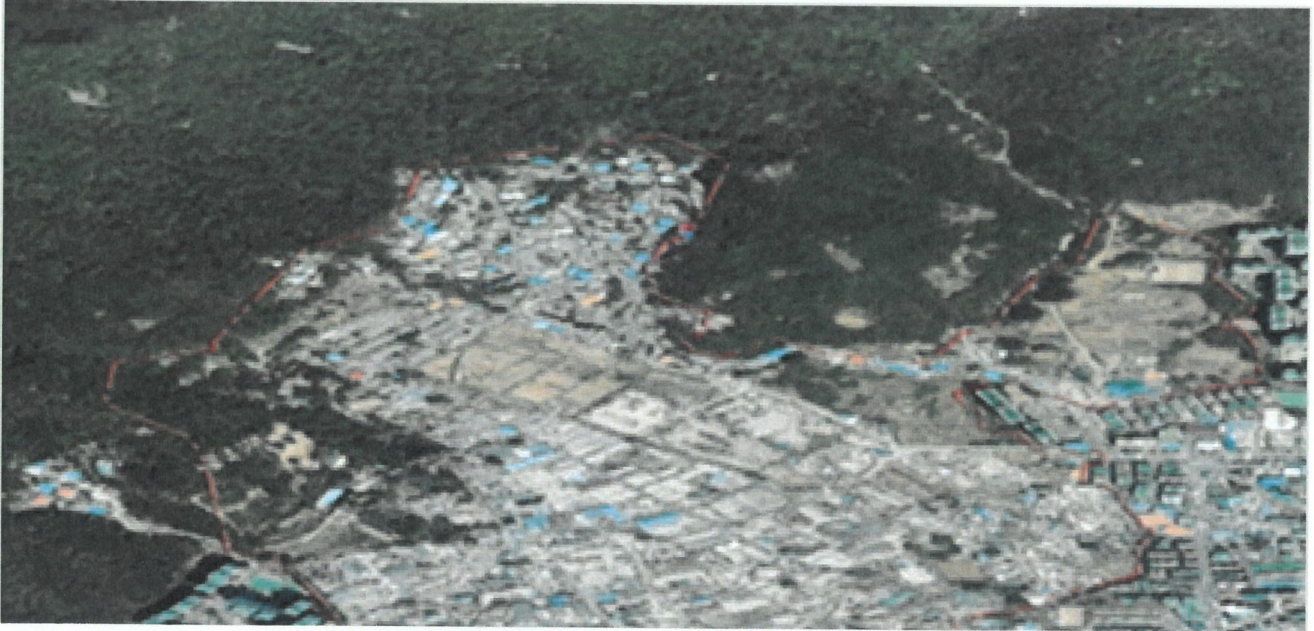
시행방식: 수용 또는 사용방식

사업비: 681,631백만 원

향후계획

2025.12.: 사업완료

위치도 및 토지이용계획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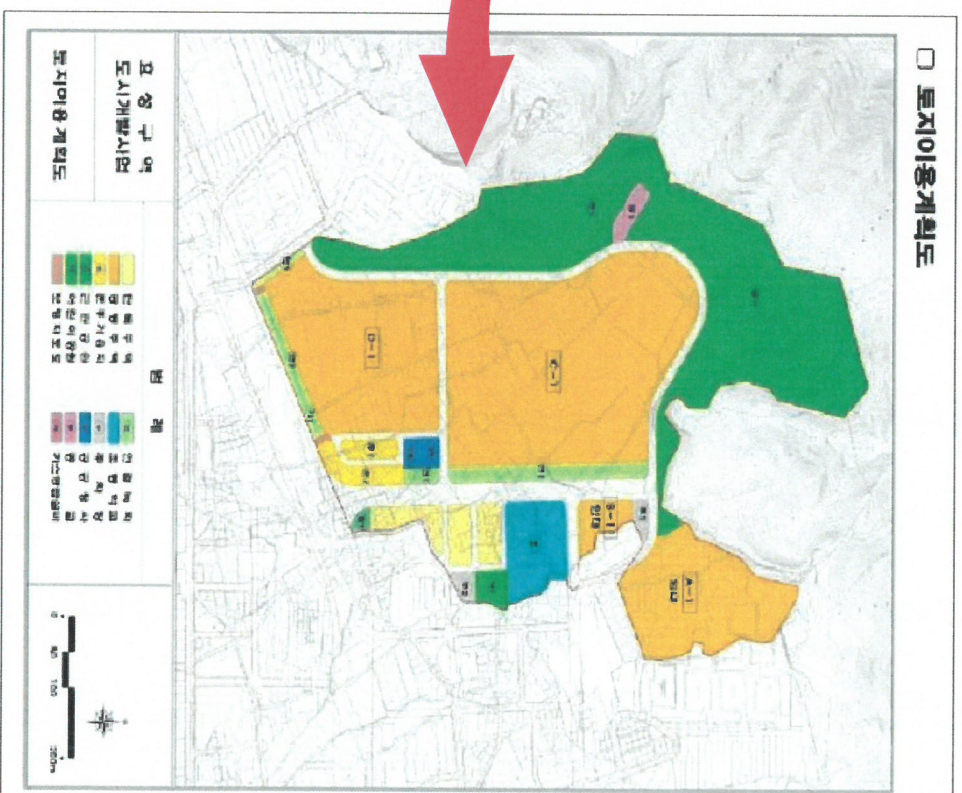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자료관리담당자

담당부서: 도시개발과 문의처: 032-440-4655 최종업데이트: 2021-12-28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

기존의 노후불량한 주택의 계획적인 정비와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 진행중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

- 2018년 제이케이 도시개발이 사업부지를 새로 매입하여 다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기존 노후 불량한 주택의 정비와 공공시설 확보,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계획중인 사업
- 면적 : 43만 4,989 m²
- 세대 수 : 공동주택 3,769세대, 단독주택 229호

 국토교통부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22. 3. 22.(화) / 총 3매(본문2, 참고1)	
담당 부서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철도과	담당 자	• 과장 안재혁, 사무관 이동호, 주무관 이준호, 송인규 • ☎ (044) 201-3964, 3981, 4640, 4024
보 도 일 시		2022년 3월 23일(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3. 22.(화) 11:00 이후 보도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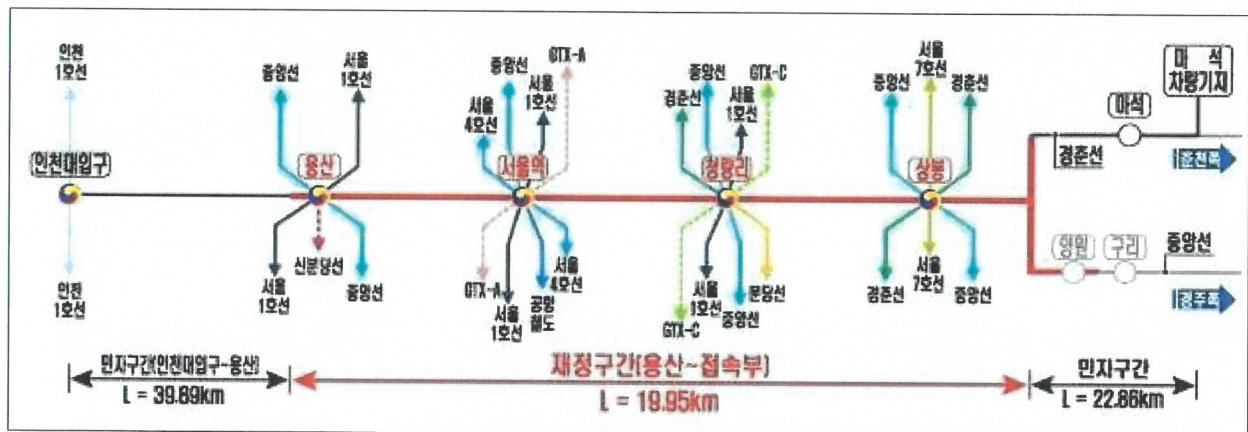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용산~상봉) 기본계획 확정·고시

- 기존 철도노선과의 환승여건 개선 등 이용객 편의 중점 -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중 용산~상봉 구간에 대한 기본계획을 3월 23일자로 확정·고시했다.

* GTX-B노선(인천대입구~마석) 중 용산~상봉구간은 재정사업으로, 인천대입구~용산, 상봉~마석 구간은 민자사업으로 추진

<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약도 >



○ 총사업비 2조 3,511억원을 투입하여 용산~상봉 간 19.95km 및 중앙선 연결구간 4.27km*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정거장은 총 4개소를 신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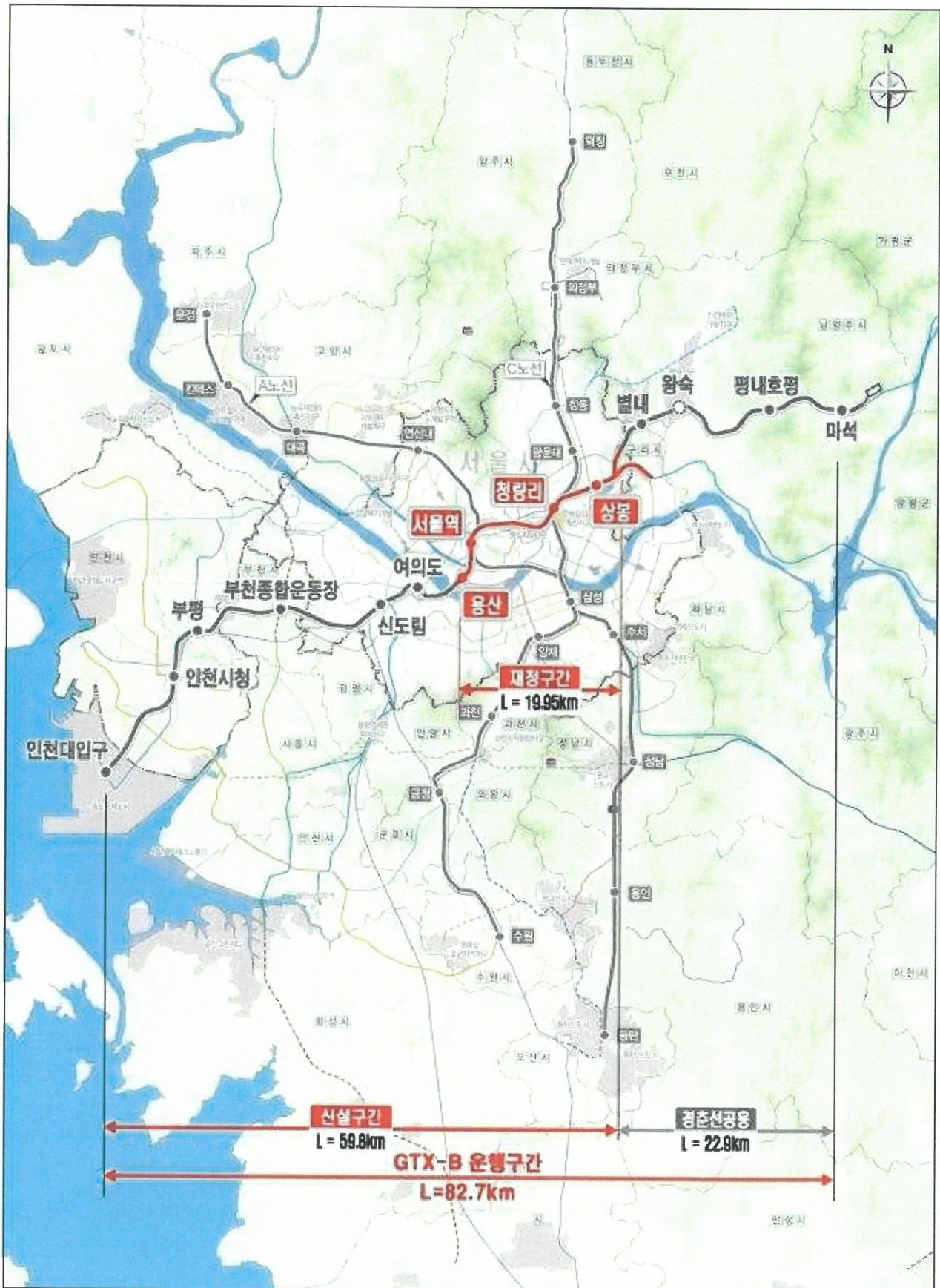
* GTX-B노선은 중앙선 용산~망우 2복선화 사업을 포함하여 예타통과('19.8)


□ 이번 기본계획은 예비타당성조사 대비 기존 노선과의 환승 등 승객 이용편의를 최대한 높이는 방향으로 수립되었다.

- 용산역은 1호선, 일반철도, KTX와의 환승거리를 최소화하였으며, 4호선, 장래 추진 예정인 신분당선과는 지하연결통로를 통해 환승편의를 제고할 계획이다.
- 또한, 서울역과 청량리역은 각각 연결통로 설치, 승강장 공용을 통해 향후 A노선, C노선과 지하 내 수평환승이 가능하며, 상봉역은 7호선·경의중앙선 환승을 고려하여 연결통로를 설치할 예정이다.
- 용산~상봉 구간은 착공시기를 단축하기 위하여 대형공사 입찰 방법 심의를 거쳐 일괄입찰(Turn Key) 방식 등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 민자구간은 연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목표로 추진하고, 향후 실시협약, 실시설계 등을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개통 시 용산~상봉 구간은 기존선로 대비 소요시간이 절반 이상 단축(33→15분)되며, 남양주·인천 등 수도권 동·서 지역의 서울 도심 접근성은 30분 이내로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 * (인천대입구역→서울역) 약 30분 소요, (마석역→서울역) 약 27분 소요
 - 아울러, 향후 중앙·강릉선 열차의 GTX-B노선 공용으로 기존 지상선로 용량확보, 운행차량 증편 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 국토교통부 강희업 철도국장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은 A, C 노선과 함께 수도권 교통여건 개선의 핵심축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 “지역주민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사업인 만큼 후속 절차를 조속히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수도권광역급행철도과 이동호 사무관(☎044-201-398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보도설명자료	
		배포일시	2022. 5. 4(수) / 총 1매
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수도권광역 급행철도과	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장 안재혁, 서기관 박정란 • ☎ (044) 201-3964, 3983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 D·E·F는 차질없이 진행됩니다.

<보도내용('22.5.4, 경향신문)>

◆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 GTX-E·F 신설 빠졌다

□ 국토교통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D·E·F 최적 노선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국토부는 '22.6월부터 GTX 추가노선에 필요한 수요와 사업성 분석을 위한 관련 기획연구를 추진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국가 철도망계획 반영 등 후속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보도 설명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수도권광역급행철도과 박정란 서기관(☎ 044-201-398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서울 2호선 정가역장 관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936호 (GTX-D 2호선 관련)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을 다음과 같이 확정·고시 합니다.

2021년 7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 주요내용

I

제4차 국가철도망 개요

- ☐ 계획의 목적 : 철도투자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장기(10년 단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수립
- ☐ 계획의 성격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계획
- ☐ 계획의 기간 : '21~'30(10년간, 계획 수립일부터 5년마다 변경 가능)
- ☐ 주요내용 : 철도의 중장기 건설계획, 소요재원의 조달방안, 환경친화적인 철도 건설방안 등
- ☐ 추진경위
 - '19. 7월 :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
 - '21.4.22 :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연구결과 공청회
 - '21. 5~6월 : 국토계획평가, 관계기관 협의
 - '21.6.29 : 철도산업위원회 심의·의결

Ⅱ

국가철도망 비전 및 주요 추진과제

- ☐ 비전 : 국민생활과 나란히, 누구나 누리는 철도
- ☐ 목표 : 국민이 원하는 경쟁력 있는 철도, 국가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철도, 그린 모빌리티의 중심이 되는 철도
- ☐ 주요 추진과제
 - ① 철도운영 효율성 제고
 - ② 주요 거점 간 고속연결
 - ③ 비수도권 광역철도 확대
 - ④ 수도권 교통혼잡 해소
 - ⑤ 산업발전 기반 조성
 - ⑥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환경 조성
 - ⑦ 남북 및 대륙철도 연계 대비

Ⅲ

과제별 세부 추진계획

(1) 철도운영 효율성 제고

- ☐ 용량부족 해소 및 기존노선 급행화
 - 철도운영 집중구간인 경부 고속선 등의 용량부족(Bottleneck)을 해소하여 철도망 전체의 이용률 제고
 - 기존노선에 속도가 더 빠른 열차를 투입하여 선로 등 시설 활용 제고
- * 공항철도 급행화 : 기존 공항철도 노선에 150km/h급 고속 차량을 운행

□ 단절구간 연결 및 전철화

- 열차 운행 단절구간(Missing Link)을 연결하여 수도권과 지역 거점 또는 지역 거점 간 연계성을 제고하고, 비전철구간 전철화 등 추진

(2) 주요 거점간 고속연결

□ 일반철도 고속화

- 급구배·급곡선 등 선로를 개량하여 주요 노선을 고속주행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거점 간 이동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
 - * 전라선(익산~여수), 호남선(가수원~논산), 동해선(삼척~강릉) 고속화 개량 추진
- 250km/h급 고속화 서비스를 확대하여 주요 거점 간 이동속도를 단축하고, 노선 간 연계성 강화를 위한 연결선 사업도 추진

□ 고속철도 운행지역 확대

- 호남고속철도 2단계(광주~목포), 인천발·수원발 KTX 등 계속사업은 계획대로 진행하고, 고속철도 소외지역에 신규 고속 서비스* 제공
 - * 서해선~경부고속선 연결선 : 서해안 지역에 고속철도 서비스 신규 제공

(3) 비수도권 광역철도 확대

□ 기존노선을 활용한 광역철도망 구축

- 경부선, 호남선 등 여유용량을 활용하여 상대적으로 작은 비용으로 광역철도를 건설·운영하여 선로 활용률을 제고

□ 지방 대도시권 등 활성화를 위한 신규 광역철도 건설

- 지방 광역경제권 내 거점을 연결하는 신규 광역철도를 건설하여 지방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주민 이동편의도 제고

[4] 수도권 교통혼잡 해소

☐ 광역급행철도망 구축

-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3개 노선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서부권역에 광역급행철도 노선을 신설하여 급행철도 서비스 수혜지역 확대

☐ 신규 광역철도망 확대

- 2·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외곽의 주요 개발지역과 서울 간 이동 편의성 제고를 위해 도시철도 연장형 광역철도 등 신규노선 건설

[5] 산업발전 기반 조성

☐ 철도를 통한 산업활동 지원

- 주요 산업단지와 항만의 물동량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 철도 인입선을 건설하고, 대륙철도 연계운송을 고려한 철도물류 인프라 확충

☐ 철도산업 도약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

- 철도종합시험선로를 고도화하여 신규차량 주행시험 등 용량을 확대하고, 철도 기술개발 및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기반 마련

[6]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환경 조성

☐ 성능중심 철도시설 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철도안전 강화

- 안전성·내구성·사용성을 기반으로 하는 성능중심 관리 체계로 전환하고, 시설 원인으로 발생한 철도 사고·장애 빈도 등 정밀 분석

☐ 이용자가 편리한 철도환경 조성

- 무장애(Barrier Free) 역사시설 및 신속한 승하차를 위한 고상홈을 설치하고, 철도역을 중심으로 버스, 택시 등 교통수단을 연계하여 환승편의 제고

☐ 환경친화적인 철도건설 추진

- 계획, 설계, 건설 등 철도사업 추진 전 단계에서 대기질, 수질, 지형·지질, 동·식물, 소음·진동, 위락·경관 등 영향을 적극 고려

(7) 남북·대륙철도 연계 대비

☐ 통일시대에 대비한 남북철도 연결

- 동해선 강릉~제진 등 남북철도 연결 사업을 정상 추진하고, 북한 철도 현대화 방안을 마련하여 한반도 통합철도망(TKR) 완성

☐ 남북/대륙철도 연결 및 국제철도 운행 준비

- OSJD(국제철도협력기구, '18년 가입) 활동을 본격화하고, 유라시아 철도 운행 표준을 규정하는 국제철도 화물협정 및 여객협정 가입 추진

IV

제4차 계획의 투자계획

- ☐ (총 투자규모) 계획기간('21~'30) 동안 총 92.1조원, 계획기간 외에 27.7조원을 투자하여 총 119.8조원을 투자할 계획

- ☐ (부문별 투자규모) 고속철도 15.3조원, 일반철도 47.0조원, 광역철도 건설에 57.4조원 소요 전망

* 계획기간('21~'30) 동안에는 고속철도 11.7조원, 일반철도 38.0조원, 광역철도 42.3조원 소요 전망

- (재원조달) 국고 72.4조원, 지방비 10.4조원, 민자유치 22.7조원, 공단 채권 등 기타 14.4조원 등으로 소요재원 조달 계획

* 계획기간('21~'30) 동안에는 국고 56.9조원, 지방비 8.1조원, 민자유치 16.4조원, 공단 채권 등 기타 10.7조원 등으로 소요재원 조달

(단위 : 억원)

구분	총 사업비	'21~'25	'26~'30	계획기간 내	계획기간 후
국고	723,761	292,543	276,514	569,057	154,705
지방비	103,735	35,328	45,397	80,725	23,010
민자	226,520	57,720	105,978	163,699	62,822
공단채권, 광역교통개선부담금 등	143,671	49,127	57,990	107,117	36,554
소계	1,197,688	434,718	485,879	920,597	277,091

- 국가재정운영계획, 단년도 편성 예산 등 재정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

□ 다양한 철도투자 재원방안 마련

- (철도공단 투자) 고속철도 수요증가로 공단의 선로사용료 수입 증가추세, 적절한 수준으로 부채를 관리하면서 공단 先투자* 등 검토

* 철도공단이 채권발행 후 先투자하고, 국가는 추후 원리금 및 이자를 상환

- 지속가능한 철도투자를 위해 선로사용료 조정, 부대사업 추진 등을 통해 공단 부채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는 대책 마련

- (민자사업 확대) 신설형 광역철도 등 독립적인 운영이 가능하고, 경제성·재무성이 확보되는 사업은 원칙적으로 민자사업으로 추진

* BTO+BTL 등 다양한 민자사업 방식을 추진하고, 부대사업 활성화

- (신규재원 확보)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사용 등을 통해 사업비를 절감하고, 폐선 등 철도유희부지 매각비용 등 투자재원 확보

- (광역철도 재원 마련) 신도시 개발과 병행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광역교통개선분담금을 충분히 확보하여 국고부담 최소화

- (영업거리) 철도 영업거리는 4,274.2km에서 5,340.6km(125% ↑), 전철화 연장은 3,116.2km에서 4,182.6km(134% ↑)로 대폭 제고

* 철도 수송분담률은 '19년 11.5%에서 '30년 17% 수준으로 증가 예상

- (철도운영 효율화) 고속·고속화철도 운행용량 확보*, 단절구간 연결 등으로 수도권과 지역 간, 지역 주요거점 간 원활한 교류 가능

* 서울~수색구간: 255회/일('21) → 476회/일('30), 221회/일 증가

경부고속선 광명~평택구간: 190회/일('21) → 380회/일('30), 190회/일 증가

- (거점 간 이동시간 단축) 기존선로 고속화 개량, 신규 고속철도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이동시간 획기적 단축

- (국민 생활여건 개선) 수도권 및 지방 대도시권 등 주요 광역권 광역철도를 건설·운영하여 출퇴근 시간이 현재 대비 50% 미만으로 단축

- (환경오염 배출저감) 수도권 광역철도 및 고속·일반·지방 광역철도 이용객증가에 따라 연간 미세먼지(PM2.5) 204톤 이상 감소 예상

- (철도산업 발전기반 조성) 오송 철도종합시험선로 순환선 확보로 국내 철도차량 수요대응과 해외수출 차량의 기술·안전성 확보에 기여

- (경제적 파급효과) 계획기간 동안 총 921조원 투자계획이며, 이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는 255조 2,533억 원으로 추산

생산유발효과(억원)	임금유발효과(억원)	고용유발효과(인)
1,801,517	751,016	469,961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 전문은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olit.go.kr>)를 통해 조회(정책자료/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철도정책과(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5동 504호, 전화 (044)201-3940, 팩스 (044)201-55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1

신규사업 현황 (총 44개 사업, 1,448km, 58.8조원)

	노 선 명	사업구간	사업내용	연장(km)	총 사업비(억원)
① 운영 효율성 제고사업					
고속	경부고속선	수색~서울~광명	복선전철	26.6	22,285
		광명~평택	2복선전철화	66.3	56,942
일반	문경·점촌선	문경~점촌~김천	단선전철	70.7	11,437
	경북선	점촌~영주	단선전철화	55.2	2,709
	공항철도	서울역~인천국제공항	급행화	63.9	4,912
광역	분당선	왕십리~청량리	단선전철	1.0	820
소계(6개 사업)				283.7	99,105
② 주요 거점 간 고속연결 사업					
고속	서해선~경부고속선 연결선	화성~항남~경부고속선	복선전철(직결선)	7.1	5,491
일반	광주~대구	광주송정~서대구	단선전철	198.8	45,158
	평택부발선	평택~부발	단선전철	62.2	22,383
	원주연결선	원주~만종	복선전철(직결선)	6.6	6,371
	동해선	삼척~강릉	단선전철(고속화)	43.0	12,744
	전라선	익산~여수	복선전철(고속화)	89.2	30,357
	호남선	가수원~논산	복선전철(고속화)	17.8	7,415
소계(7개 사업)				424.7	129,919
③ 비수도권 광역철도 확대 사업					
광역	충청권 광역철도(2단계)	신탄진~조치원	복선전철(기존선)	22.6	364
	충청권 광역철도(3단계)	강경~계룡	복선전철(기존선)	40.7	511
	동탄~청주공항 광역철도	동탄~청주공항	단선전철	78.8	22,466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반석~조치원~청주공항	복선전철	49.4	21,022
	대구권 광역철도(2단계)	김천~구미	복선전철(기존선)	22.9	458
	대구1호선 영천 연장	경산 하양역~금호	복선전철	5.0	2,052
	대구~경북 광역철도	서대구~의성	복선전철	61.3	20,444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부산 노포~울산역	복선전철	50.0	10,631
	동남권순환 광역철도	진영~울산역	복선전철	51.4	19,354
	광주~나주 광역철도	상무역~나주역	복선전철	28.1	15,235
	용문~홍천 광역철도	용문~홍천	단선전철	34.1	8,537
소계(11개 사업)				444.3	121,074

④ 수도권 교통혼잡 해소 사업

광역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장기역~부천종합운동장역	복선전철	21.1	22,475
	별내선 연장	별내역~별가람역	복선전철	3.2	2,384
	송파하남선	오금~하남시청	복선전철	12.0	15,401
	강동하남남양주선	강동~하남~남양주	복선전철	18.1	21,032
	위례과천선	북정~정부과천청사	복선전철	22.9	16,990
	고양은평선	새절~고양시청	복선전철	13.9	14,100
	인천 2호선 고양 연장	인천 서구~고양 일산 서구	복선전철	18.5	17,502
	위례삼동선	위례~삼동	복선전철	10.4	8,168
	일산선 연장	대화~금릉	복선전철	10.9	12,127
	분당선 연장	기흥~오산	복선전철	16.9	16,015
	신분당선	호매실~봉담	단선전철	7.0	4,374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용산~삼송	복선전철	20.2	18,002
	대장홍대선	부천대장~홍대입구	복선전철	20.0	21,526
	제2경인선	청학~노온사	복선전철	21.9	16,879
	신구로선	시흥대야~목동	복선전철	12.4	9,430
소계(15개 사업)				229.4	216,405

⑤ 산업발전 기반조성 사업

일반	새만금선	대야~새만금항	단선전철	47.2	13,569
	대합산단산업선	대구산단~대합산단	단선전철	5.4	2,653
	동해신항선	삼척해변~동해신항	단선철도	3.6	1,650
	부산신항 연결지선	부산신항선~부전마산선	단선전철(연결선)	6.5	2,151
	철도종합시험선	오송 철도종합시험선로	단선전철	3.6	1,071
소계(5개 사업)				66.3	21,094
총 계(44개 사업)				1,448.4	587,597

참고2

추가검토 사업 (24개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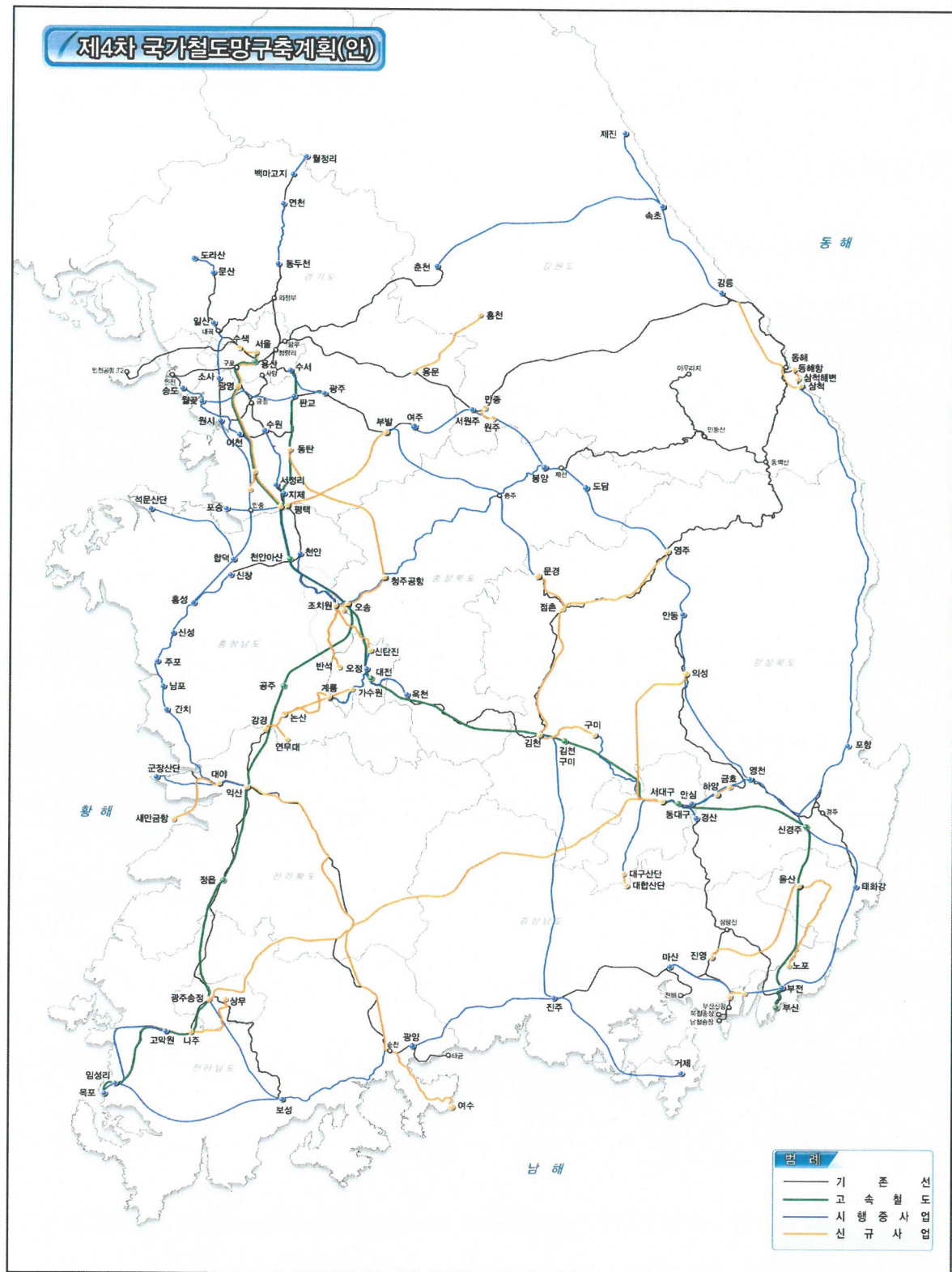
* 장래 여건변화 등에 따라 추진검토가 필요한 사업

노 선 명	사업구간	사업내용	연장(km)
인천2호선 안양 연장	인천대공원~안양	복선전철	21.8
서울6호선 구리남양주 연장	신내~남양주	복선전철	-
서울2호선 청라 연장	홍대입구(까치산)~청라 ¹⁾	복선전철	-
서울5호선 김포검단 연장	방화역~검단~김포 ²⁾	복선전철	-
경강선 연장	삼동~안성	단선전철	59.4
별내선 의정부 연장	별가람~탑석	복선전철	8.7
조리금촌선(통일로선)	삼송~금촌	복선전철	17.8
교외선	의정부~능곡	단선전철	28.9
인천신항선	월곶~인천신항	단선철도	12.5
경원선	연천~월정리	단선전철화	29.3
전주김천선	전주~김천 ³⁾	단선전철	101.1
점촌안동선	점촌~신도청~안동	단선전철	47.9
보령선	보령~조치원	단선전철	82.1
내포태안선	내포~태안	단선전철	57.6
국가식품클러스터산업선	동익산 신호장~원주산단	단선철도	11.4
중부권 동서횡단선	서산~울진	단선전철	322.4
창원산업선	창녕 대합산단~창원	단선전철	46.3
구미산단선	사곡~구미산단	단선철도	8.3
대산항선	석문산단~대산항	단선철도	18.6
의성영덕선	의성~영덕	단선전철	71.9
원주춘천선	원주~춘천	단선전철	50.7
마산신항선	마산~마산신항	단선전철	13.3
태백영동선	제천~삼척	복선전철	125.4
군산목포선	군산~목포	복선전철	121.0
계			1,256.4

1) 대장홍대 사업이 확정된 후 관계 지자체 및 민간사업자 등 협의를 거쳐 최적대안으로 추진

2) 노선계획 및 차량기지 등 관련시설에 대한 지자체 간 합의 시 타당성 분석을 거쳐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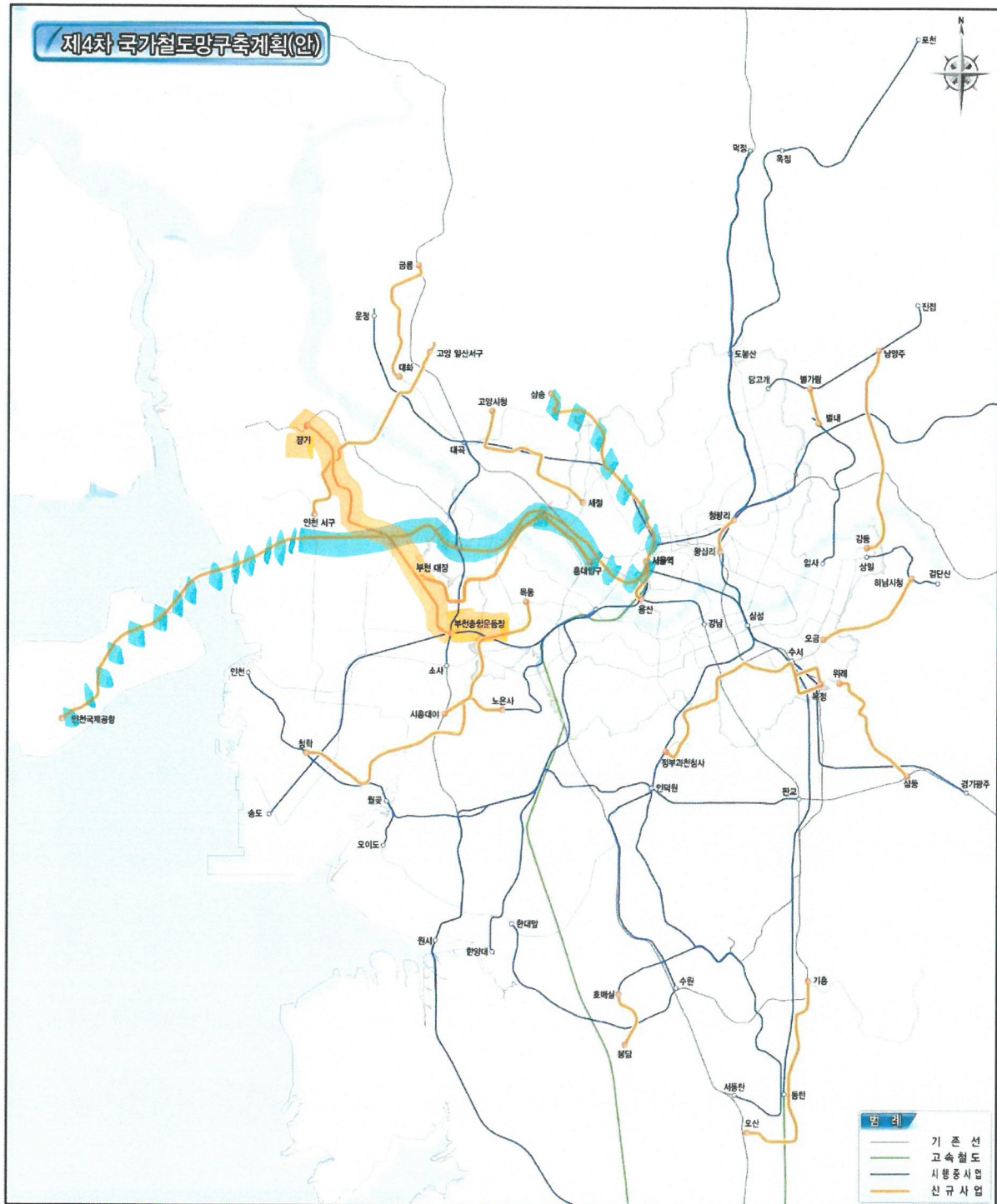
3) 사전타당성조사 등을 통해 타당성이 확보되는 대안노선이 있는지를 추가검토하고, 타당성이 인정되는 노선이 있는 경우 사업 추진



※ 본 노선도는 향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변동 가능

참고4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계획도 (수도권)



※ 본 노선도는 향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변동 가능